

찬 망



주의 밑에 그늘 아래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와주심을 믿어요.

말이 잘 안 나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사도들이 무서운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며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Q2.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고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한 친구나 가족은 누구인가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2026년 10월 셋째 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충일이는 내일 친구 별이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고 말하려고 거울 앞에서 몇백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 서니 마음이 너무 떨리고 심장이 쿵쿵쿵 뛰었어요.

"별이가 싫어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돼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꿈틀이가 에게 말해줬어요!

"충일아,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용기를 가득 채워주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오늘 성경 속 사도들도 예수님 이야기를 힘차게 전했어요. 하지만 나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꺼내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사도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화를 냈지만, 사도들은 용기 있게 말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도,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고 말하려고 할 때,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가 있어요.

마치 길을 걸을 때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아주면 용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할 때 우리 곁에서 용기를 가득 채워주신답니다.

전도는 내가 말을 아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 같이

말씀봉독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성경이야기 전도할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